

고용보험제도의 이해

문 귀 성
(총무부 대리)

1. 머리말

우리나라의 80년대 이전 노동 시장은 근로자의 근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으로 노동력 수급의 단순공급 불균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노동력 부족시대로 접어들었다. 생산인력의 구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문계 고학력자의 구직난이 병존하는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직업안정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GNP가 8천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라는 개념에서는 물론이려니와 그에 앞서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같은 직업안정 기능의 강화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고용보험제도이며,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와 더불어 삼충보장의 최상위 개념인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내용 및 이해를 돕고자 정부 시행내용과 고용보험제도에 대

한 조사연구자료를 간추려 이 제도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언급은 개인의 의견일 뿐임을 밝혀둔다.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 보험제도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걸쳐서 그들의 소득을 보상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산업에 필요한 유지 및 보전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회, 즉 고용의 기회는 '실업'이라고 하는 비임의적인 사고에 의하여 위협받게 되었으며 근로자에 있어서 실업은 그의 생활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며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업의 요인은 개인 혹은 기업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업에 의한 경제생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며, 이것을 개개인의 근로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실업은 사용자나 고용자의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요인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의 해결은 하나의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언급된 바와 같이 실업 중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 목적에 따라 고용보험은 국가의 일반적인 구제정책이 아니라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실업을 담보로 하는 사회보험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3. 고용보험제도의 형태와 비용부담

가. 고용보험의 적용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방법은 크게 강제적 제도와 임의적(자발적)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자발적 고용보험은 국가의 강제적 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직종내 혹은 기업내 노동조합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는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의 의미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필연적이며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실업의 대량 발생에 의한 사회적 불안정을 피하기 위하여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 피용자를 강제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실업 급여제도의 형태

강제적 고용보험	자발적 고용보험	실업 부조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대부분 국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외	오스트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외

* 2중적 제도의 국가

각국의 고용보험 자원 조달방법

국 가	피 용 자	고 용 주	정 부	
			각 출	관리행정부
미국		●		●
영국	●	●	●	
캐나다	●	●		
독일	●	●	●	●
스위스	●	●		
프랑스	●	●	●	
스웨덴	●	●	●	
핀란드	●	●		
일본	●	●	●	●
이탈리아		●	●	●

나. 비용부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재정 조달원은 고용주, 피용자 그리고 정부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 고용보험 실시 국가들은 이들 3자를 서로 그들의 상황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고용보험의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여기서 비용 즉, 보험료 각출의 노사분담은 실업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물론, 거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을 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출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 자발적 실업 여부의 정확한 규명이 쉽지 않다고 본다면, 고의적 실업에 의한 급여의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용자에게도 보험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피용자는 그들의 실업을 조절할 능력이 없으며 피용자의 각출부담은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피용자부담

이상의 임금 인상이 요구된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제도를 피용자 각출에 의하게 되면 결국 피용자가 스스로의 실업을 조정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는 점으로 인하여 각출료의 고용주 부담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전통적 의미의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보다 적극적인 직업 소개 또는 직업 훈련지원을 통한 재취업과 다양한 고용안정, 능력 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인력정책인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제도¹⁾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 4대 사회보장제도²⁾가 완성되었다 할 수 있게 되었다.

- (1) 고용보험제도의 기대 효과
 ① 산업구조 조정 및 경영 합리화 촉진

註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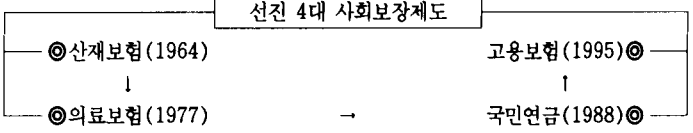
◎ 실업보험

·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 고용보험

-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적극적 구직 활동지원
-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 산업구조조정 및 경기변동에 따른 휴업, 전직훈련 지원

註 2



②인력 수급의 원활

③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④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재취업 촉진

⑤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추진 가능

(2)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사부담

① 고용보험 적용범위

구 분	1995.7	1998.1
실업급여	30인	10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50인

②당연 적용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 시간제 근로자
- 3개월 이하의 계절적,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및 사무직원
-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에 의한 선원
- 외국인 근로자

③ 고용보험료 부담

사 업	고용보험료 부담 주체	고용보험 요율(임금 총액대비)
실업급여	노·사 각각 1/2 부담	0.6%
고용안정사업	사업주 부담	0.2%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 : 0.1%
		150인 이상 - 중소기업 : 0.3%
		대기업 : 0.5%
		* 훈련의무제 적용기업 : 0.05%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대기업은 상시 150인 이상 사업장 중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장을 말한다.

구 분		피 보 험 기 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 재 연 령	25세 미만	30일	60일	90일	120일
	25-30세 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30-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장애인이라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3) 실직 기간중의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되어야 함.

• 정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이직후 즉시 노동관서에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과 구직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② 기본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기본급여는 이직전 임금의 약 50% 수준을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10일간 지급하며, 직업훈련 수강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최대 2년까지 연장 지급할 수 있다.

5. 고용보험제도의 시사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역사는 전무하나 하나의 변칙적인 제도의 형태로서의 퇴직금제도는 사실상 고용보험

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 또한, 국민복지 연금제도는 개인의 경제생활의 종료시 반드시 다가 올 노령 퇴직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퇴직금 및 연금제도가 서로 공통되는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 고용보험제도로서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퇴직금제도가 민간의 노후대책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정립되도록 퇴직금제도의 통산제도나 혹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전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용할 고용보험의 모델이 최선의 선택일지는 모르나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사회는 항상 변화하며, 제도는 이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낳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모델을 항상 변밀한 분석으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시사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보험제도의 순기능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적인 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① 실업급여의 실질적인 실직자 생활 안정
- ② 소득 재분배 기능
- ③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신속, 정

확한 정보파악으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수립

둘째,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자의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사양산업의 실업자 문제와 각 부문별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해소되는 적극적인 고용개선 및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실업을 하나의 보험 사고라고 볼 때 보험의 원리를 적용, 건전한 고용보험으로 보험재

정의 안정이 중요하다.

넷째, 고용보험의 비용부담에 있어 급부비용의 노·사부담과 관리 행정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용보험의 급부 수준은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최저 생계비의 개념은 전체 국민의 최저생활을 위한 평균적 생계비 혹은 개개인의 기본욕구를 위한 생계비인가에 대한 결정과 국

민연금의 지급 수준과의 균형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 위하여는 고용보험제도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제도이며 노·사 쌍방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 제도 시행이 부담 측면에 이해되기 보다는 새로운 인식의 수용을 전제로 정부, 근로자, 사업주간의 협조를 통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

신·간·안·내

● 노박사의 계절 한방

한의학 박사 노승현/신국판/336쪽/7,000원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원인없는 질병은 없다. 오직 각자가 정성을 다하여 몸을 닦고 정신을 온전히 하면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질병에 대해서도 알고 대처하면 치료나 예방이 덜 힘든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질병 치료에 대한 한약방식인 사고, 장부와 조직간의 유기능 체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상의 장부와 힘, 자연의 무한대한 치유책과 존재 이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노력하였다.

● 독특한 이 책만의 특징/무료 상담권 계절 건강 DIARY

국내 최초로 건강이나 질병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는 독자와 작가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한 무료 상담권 2매를 권말 부록으로 첨가시켰다. 또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참고가 되도록 계절 DIARY(계절별 질병 예방 지침)와 처방의 일부분을 게재하였다. 겨울철의 원인이 봄에 질환을 일으키고 여름철의 무절제함이 가을철에 발병하는 것이므로 매절기, 매계절, 매년마다 오는 병을 미리 알아 대비한다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일 더하기 일은 삼

노수민/四六판/224쪽/4,500원

● 노수민의 콩트를 모아 작은 소설 모음집으로 꾸몄다.

김일성의 사망 시기를 비슷하게 예언하여 화제가 됐던 역술가들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사망 일시와 사망 상황을 상상, 소설 '불바다'를 써서 화제가 되었던 작가 노수민!!

작품마다 따뜻한 인간애를 표현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작가가 그 동안 써 온 콩트들을 정리하여 한 권의 작은 소설 모음집으로 꾸몄다.

우리의 긴 삶과 인생의 작은 단면을 기지와 유머가 풍부한 작품으로 완성한 작가의 역량이 돋보이는 빼어난 글이다.

● 상큼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꾸민 포켓북!!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청량감을 줄 작가 노수민의 '일 더하기 일은 삼'은 지하철 안에서나 그 어느 여행지에서나 손쉽게 볼 수 있고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포켓북으로 새롭게 꾸몄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작고 큰 일상사를 작가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기분으로 대할 수 있는 밝고 신선한 내용들이다.